백원국 제2차관, "해빙기 도로 건설현장, 안전 최우선 공사" 당부

- 16일 국도 77호선 고성-통영 건설 현장 찾아 공정 및 안전관리 철저 지시 -

□ **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**은 2월 16일(금) 오후 1시경 국도77호선 **고성-통영 건설현장**을 **방문**하여 **공사 진행상황**을 **점검**하고 **관계자들**을 **격려**하였다.

□ 국도77호선 **고성-통영** 도로 **건설사업**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에서 통영시 광도면까지 **총 18.5㎞ 구간**에 **2차로 도로 신설**과 **4차로 도로 확장**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**2026년 개통**을 **목표**로 공사가 **본격 진행 중**이다.

○ 이 **도로**가 **개통**되면 한반도 서남해안을 "ㄴ"자로 걸치는 **국도77호선**의 **수송기능**이 **확대**되어 고성-통영 간의 **교통정체 해소**와 더불어 **지역 균형발전**에도 **크게 기여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백 차관은 현장에서 건설공사 공정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"**고성-통영 국도**는 **경남 남해안 지역**의 **발전**을 이끌 **중요한 축**"이라면서, "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**철저한 공정관리**를 통한 **적기 준공**과 함께 **해빙기**를 맞아 **근로자** 및 **시설물 사고**가 **없도록 안전관리**에 **만전**을 기해 줄 것"을 **당부**하였다.

2024. 2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